

SM, "시아준수, 소송 보름 전 4500만원 가불..이해 불가"

양승준 · 입력 2009. 8. 21. 11:59 · 수정 2009. 8. 21. 12:30



▲ 그룹 동방신기

[이데일리 SPN 양승준기자] 동방신기 멤버 시아준수(본명 김준수)가 'SM 소송' 보름 전 소속사로부터 4500만원의 가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끈다.

시아준수, 영웅재중, 믹키유천 동방신기 세 멤버의 변호인단과 SM엔터테인먼트(이하 SM) 법률대리인은 21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 민사법정에서 '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'에 대한 1차 심리를 진행했다.

이날 심리에서 SM 변호인단은 세 멤버의 갑작스러운 소송에 대한 당혹스러움을 설명하며 시아준수의 가불 사실을 털어냈다.

SM 변호인단은 "김준수가 7월15일 회사에서 4500만원을 가불했다"며 "소송 근 한달 전에 이 같은 일을 한 것은 일반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다"고 말했다.

한편, SM 변호인단은 동방신기 세 멤버와 갑작스러운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된 것에 대해 지난 2월 전속 계약 관련 5차 부수 합의가 있었고 3~4개월 전만해도 소속사와 아무런 갈등이 없었던

점을 들어 멤버들의 화장품 사업으로 인한 갈등 문제를 강조했다.

하지만 동방신기 세 멤버 변호인단은 "화장품 사업이 아니라 계약 조건의 부당성 때문"이라고 재차 주장했다.

시아준수와 영웅재중, 믹키유천은 지난 달 31일 법원에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소속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.

▶ 관련기사 ◀

[☞ 법원, '동방3인-SM' 갈등 타결 권고... "80만팬 거느린 공인으로서"](#)

[☞ 유진, "동방신기·SM 계약갈등 안타까워"](#)

[☞ '소송' 동방 3인 vs SM, 오늘\(21일\) 첫 심리... 향후 절차는?](#)

[☞ 동방신기 팬들, 법원에 'SM 소송' 12만명 서명 탄원서 제출](#)

[☞ 법원, 동방3인 제기 'SM 증거보전 신청' 인정](#)

< ©함께 즐기는 엔터테인먼트 포털 이데일리 SPN - 무단전재 & 재배포 금지 >
이데일리.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.